

2004년 10월 5일 (조간)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4. 10. 4 배포
- ▶ 총 4 쪽

보 도 자 료

- ▶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
T E L : 2110-7080
E-MAIL : epd01@chol.com
F A X : 502-685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“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본격 입국 개시!!”

- 10.4(월) 태국 등 출신 286명의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규 인력도입 시작
- 지난해 자진출국 했던 근로자(3명)도 재입국·취업
- 불법고용 사업주 처벌위주의 단속으로 불법체류 원천 차단

□ 8.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.

-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0.4(월)에 태국 출신 근로자 47명, 10.5(화) 베트남(110명), 몽골(104명), 필리핀(50명) 등 전체 286명으로 서울·경인지역 등 전국 100개 업체에서 향후 3년간 근무하게 된다.

※ 이후에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국인력 입국 예정

- 특히, 이번 입국자 중에는 지난해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기간(9.1~2.28)에 자진출국했던 3명의 근로자(몽골)가 포함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.

- 이들은 정부의 자진출국 유도정책에 따라 출국했던 자들로 구직자 명부에 포함되어 자진출국자 중 가장 먼저 재입국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.
- 현재 자진출국자 중 알선을 통해 근로계약체결이 완료된 인원은 89명으로 조만간 입국하여 기존에 근무했던 사업장 등에서 다시 3년간 일하게 될 예정이다.

※ 9.30 현재 송출국가로부터 송부된 구직자 명부 중 지난해 자진출국했던 자로서 재입국·구직신청한 자는 384명임(몽골 147명, 필리핀 96명, 베트남 68명, 스리랑카 61명, 인니 8명, 태국 4명)

- 6개국 전체 자진출국자 중 재입국 가능자 수는 총 12,635명임
- 외국인근로자를 자진출국 시켰던 기존 사업주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아 자진출국자를 재고용 가능

□ 금번 입국한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졸 이상이고, 본국에서 제조업 등 근무경력이 있는 양질의 인력으로

○ 평균 연령은 28세(20대 196명, 30대 90명)이고, 학력은 고졸 이상이 전체의 85%인 243명(중졸 43명, 고졸 172명, 대졸 71명)으로 남성 252명, 여성 34명이다.

※ 송출국가 정부(공공)기관이 공개모집을 통해 구직신청을 받아 우리측이 제시한 한국어능력, 연령, 경력, 학력, 건강진단결과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적용·선발

○ 이들은 취업능력배양 및 국내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입국 전에 송출국가 정부의 지정교육기관에서 한국어 등 150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이수하였다.

※ 입국전 사전교육은 한국어교육(80H), 한국문화의 이해(7H), 고용허가제의 이해(13H), 산업안전(15H), 기능교육(35H) 등으로 구성

□ 특히,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

○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평균 630달러 (756천원) 수준으로 낮아지고

※ 송출비용은 항공료, 사전교육비, 건강진단비, 여권·비자 발급 수수료 등 실비 수준임

· 각국의 송출비용은 필리핀(\$370), 태국(\$603), 베트남(\$699), 몽골(\$850) 등 항공료 등에 따라 차이

○ 임금(기본급 등)도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(약 65~70만원)에서 결정되었으며, 초과·연장·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월평균임금은 100만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□ 이번에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 인력을 채용하게 되는 100개 업체는 서울·경인 등 중부지역(83개) 및 영남(16개)·호남(1개)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로서

○ 섬유제조, 자동차부품, 금속가공, 기계부품 등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전형적인 3D업체에 해당한다.

□ 노동부는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왔으며

○ 이미, 필리핀, 베트남, 몽골, 태국, 인도네시아, 스리랑카 등 6개국으로부터 21,448명의 엄선된 구직자 명부를 송부 받았고

- 10.1일 현재 총 4,150개 업체에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, 이중 2,279개 업체에서 7,485명의 구인신청을 완료

- 알선을 통해 총 4,698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이중 3,812명의 근로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입국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.

○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과 건설경기의 하락 등으로 건설업체의 구인실적이 저조한 것을 제외하고

- 제조업 분야 등에서는 차질 없이 인력도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.

※ 현재 도급공사금액 300억 이상 건설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수요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

□ 정부는 최근 알카에다의 테러공격 위협과 고용허가제에 따른 대체인력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**10월부터** 무기한 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**대대적인 단속을 실시**키로 하였다.

○ 8월 이후 고용허가제 시행과 청주보호소 개소 등 단속 인프라 확충으로 법무부·경찰 중심의 강력한 상시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있으며 상당부분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< 불법체류자 단속자 · 자진출국자 현황 >

	'04. 1	3	4	5	6	7	8
적 발 자 (명)	436	1,615	1,016	1,508	1,625	1,924	2,305
자진출국자(명)	2,241	1,501	1,353	1,542	1,851	2,378	3,273

○ **10월에도** 이와 같은 법무부·경찰의 합동단속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

- 불법체류자에 대한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계도활동과 함께

- 이후의 불법고용 사업주 적발 시에는 구속수사 등을 통한 사업주 처벌 위주의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.

○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불법체류 알선·브로커 신고포상제 운영 등 다각적인 방법도 관계부처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